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녹) 연중 제 13주일 (교황 주일)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김지선 소피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율리아

(녹) 연중 제 13주일 ( 23. 7. 2.)

\*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며 교황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우리 시대의 예언자요 목자이신 교황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 열왕기 하 4,8-11.14-16ㄴ ):

8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한 부유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곤 하였다.

9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집에 늘 들르시는 이분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10 벽을 둘러친 작은 옥상 방을 하나 꾸미고, 침상과 식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 드립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그곳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11 어느 날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옥상 방에 들어 쉬게 되었다.

14 엘리사는 종에게 “저 부인에게 무엇을 해 주면 좋을까?” 하고 물었다.

계하지가 “저 부인은 아들이 없는 데다가 남편은 나이가 많습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5 그러자 엘리사는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종이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간에 섰다.

16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은 한 아들을 안게 될 것이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 로마서 6,3-4.8-11 ):

형제 여러분, 3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4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8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9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10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11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 복음( 마태복음 10,37-42 ):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38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39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40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41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42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화답송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  
○ 행복하여라, 축제의 기쁨을 아는 백성! 주님, 그들은 당신 얼굴 그 빛 속을 걷나이다. 그들은 날마다 당신 이름으로 기뻐하고, 당신 정의로 힘차게 일어서나이다. ◎  
○ 정녕 당신은 그들 힘의 영광, 당신 호의로 저희 뺨을 들어 올리시나이다. 저희 방패는 주님의 것, 저희 임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것이옵니다. ◎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위업을 선포하여라.  
◎ 알렐루야.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목자이신 주님, 교황 주일을 맞은 교회를 살피 주시어,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실천하라는 교황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2.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굽어보시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과 진리를 감추는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3. 장기 기증 운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성자의 희생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으니, 생명의 나눔인 장기 기증 운동을 지켜 주시고, 많은 이가 장기 기증 운동에 참여하여 새 삶의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4.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살피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에 충실하며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저희가 봉헌하고 받아 모신 성체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길이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 ♪ 성가 ♪

입당 : 19 (주를 따르리)  
봉헌 :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성체 : 168 (오묘하온 성체), 171 (오 거룩한 생명의 샘)  
파견 : 23 (온세상 다스리심)

### 공지 사항

#### ♣ 2023년 주임사제연수(cappellani dei migranti)

- 일시: 7월 03일(월) - 07일(금)
- 장소: 로마

#### ♣ 모임/회의

- 오늘 미사 후, 청년구역 모임
- 다음 주(7/9), 사목회의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122.7 • 교무금 € 0.00

### 오감 너머의 영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우리에게 인지되도록 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오감, 즉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이라는 다섯 가지 감각이다.  
우리는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오감을 만족시켜도 그것은  
순간일 뿐, 잠시 후면 원점으로 돌아온다.  
짧은 기쁨과 만끽이 지나면 다시  
또 채워줘야 하는 밑 빠진  
독과도 같다.

- 이주아의 《심력》 중에서 -

\* 사람은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서  
느낌을 받습니다. 이 감각기관이 고장 나가거나  
저하되어 있다면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오감은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최전선의 소통 장치입니다.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감이 잘 작동된다 해도 내면을  
채우지 않으면 밑 빠진 독이 되고 맙니다.  
오감 너머의 영감을 키워야 합니다.